

연구위원 칼럼

지워져 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시간이 멈춘 도시에서 시간 여행을 하다



김건주(목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출판위원)

몇 해 전 프라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박3일 이란 길지 않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여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프라하의 연인’ 이란 드라마 덕분에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도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 시절 ‘프라하의 봄’ 이란 영화를 보면서 매력을 갖게 된 도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프라하보다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여배우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한참 동안 그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반드시 봤던 것 같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 프라하는 유럽풍의 복고적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도시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 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이 도시가 품고 있는 시간의 겹을 무시하는 행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도시의 특징을 정리하라고 하면, ‘프라하는 천 개의 얼굴을 가진 도시’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흐르는 세월의 풍상을 겪으면서 자신의 몸통이에 새겨 놓은 겹겹의 얼굴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 프라하입니다.

프라하에서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두 가지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너무도 익숙한 것이

라 버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빨리빨리’ 와 ‘앞만 보고 걷기’ 를 버려야 프라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프라하의 거리를 걸을 때는 최대한 천천히 걷고, 가끔씩 자신이 걸어온 뒤쪽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과 뒤, 그리고 좌우를 유심히 살필 뿐 아니라 자신의 머리 위를 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문 기간이 짧아서 이곳저곳을 바빠 돌아봐야 한다고 해도 천천히 걷고 또 주변을 살피면서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기에는 너무도 아쉬운 것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프라하입니다. 첫 방문에서 느낀 감흥이 커서이기도 하지만 아쉬움이 커서 그렇습니다. 프라하는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로마네스크부터 아르누보까지 다양한 건축물이 모여 있어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건축사 박물관입니다. 그것도 축소물이나 모형으로 채워진 허상의 전시관이 아니라 실재의 실물로 가득한 박물관입니다.

이 도시에 성(城)이 처음 축조된 것은 9세기 말입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프라하는 겹겹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100년 혹은 200년의 시간을, 혹은 1000년의 시간을 거슬



러 올라가기도 하고 훌쩍 현대의 시간으로 되돌아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걸음의 속도를 재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선 역시 어느 도시를 거닐 때와는 달리 천천히 이곳저곳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눈에 뜨이는 것은 지극히 고풍스러운 프라하의 길입니다. 오래 전 마차가 중요 이동수단이었던 시절에 개통되었던 돌을 깔아 만든 도로를 보수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프라하입니다. 이 길이 프라하의 외관을 한 마디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그 길을 현재처럼 걷고 있고, 과거의 시간은 이 길 위를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구도심을 벗어나면 잘 정리된 아스팔트 도로를 만납니다. 한때 우리에게도 있었던 전차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시 이곳저곳을 지나고 있는 전선은 전차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필자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도 전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옛 모습을 기록해둔 사진에서 보았던 전차를 우리 땅이 아닌 이방의 땅인 프라하와 밴쿠버에서 만납니다.

창문이나 창틀 모양도 절대 그냥 스쳐 지나지 말아야 합니다. 벽면은 큰데 거기에 비해 창문이 작고

전체적으로 중량감이 느껴진다면 1100년 전후 유럽 전역을 유행했던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높게 솟은 첨탑과 탑을 받치는 굽은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을 옮기다 창문 위쪽 틀을 덩굴풀이나 담쟁이 같은 식물의 형태를 연상하게 하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선과 파상(波狀)·곡선·당초무늬나 화염(火焰)무늬 형태 등으로 멋지게 장식한 건물이 보였다면 반드시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 10년이란 비교적 짧은 전성기를 보낸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벽체가 없고 넓은 창을 가진 건물을 만나면 창부터 살펴야 합니다.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저 말고 내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딕 양식 건물이 주는 신비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라하에서는 너무 많은 생각에, 너무 깊은 생각에 잠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생각할 주제가 너무 많고 거슬러 올라가야 할 역사의 간격이 넓습니다. 중세 봉건 시대의 메시지와 이미지를 가득 담은 철갑옷을 파는 가게를 발견했다고 해서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프라하의 한 겹일 뿐입니다. 그

연구위원 칼럼

앞에 서서, 혹은 근처 카페에 앉아 시민혁명이나 민주화의 정당성에 대한 토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은 귀국하는 비행기 속으로 미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냥 철갑이 주는 냉정함과 화려한 부속물이 이루는 조화로움을 즐기고 기념 촬영한 장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조각 공원처럼 느껴지는 프라하에서는 참 많은 종류의 동상을 이곳저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입상들뿐 아니라 부조들까지. 동상은 해당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입니다. 이 도시를 한때 지배했던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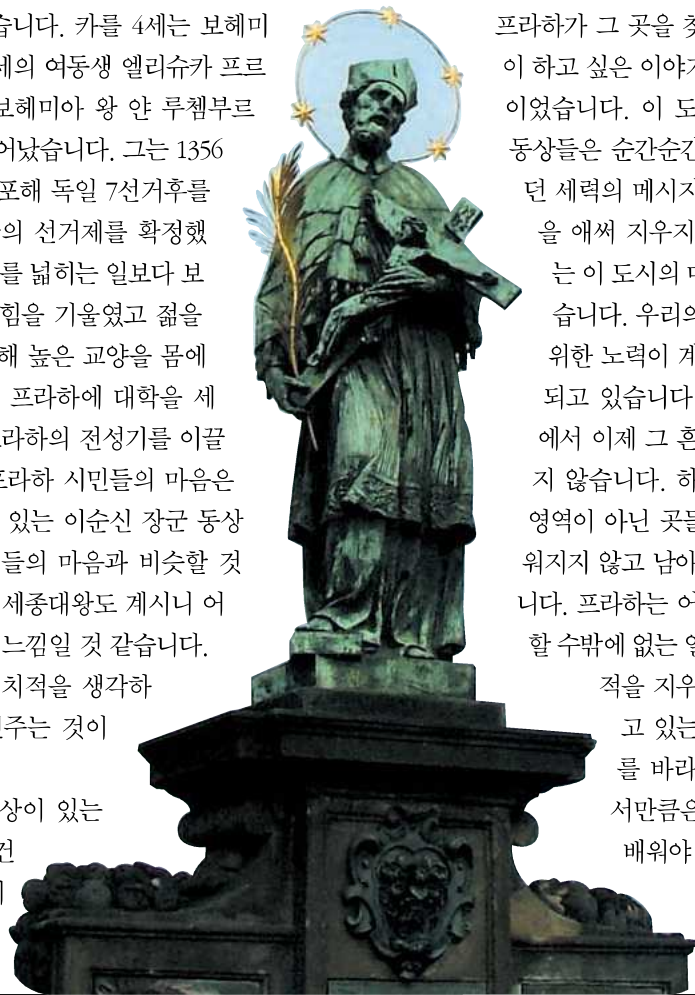
프라하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카를대교, 그래서 관광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기도 한 그 유명한 카를대교가 시작되는 한 쪽에는 카를 4세의 동상이 있습니다. 카를 4세는 보헤미아 왕 바츨라프 3세의 여동생 엘리슈카 프르세미슬로브나와 보헤미아 왕 안 루첸부르스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356년 금칙인서를 공포해 독일 7선거후를 정하고 독일 국왕의 선거제를 확정했습니다. 그는 영토를 넓히는 일보다 보헤미아의 통치에 힘을 기울였고 젊을 때 파리에서 공부해 높은 교양을 몸에 지니 독일 최초로 프라하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중세 프라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를 향한 프라하 시민들의 마음은 광화문 광장에서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세종대왕도 계시니 어느 쪽이든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굳이 카를 4세의 치적을 생각하면 세종대왕에 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를 4세의 동상이 있는 곳에서 보면, 강 건너편 쪽 언덕 위에

는 ‘프라하궁’이라고 불리는 ‘대통령궁’이 있습니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런데 그 광장에 레닌의 동상이 있습니다. 광장을 돌아다니다가 동상을 처음 발견하고서는 ‘프라하의 봄’으로 익숙한 체코 민주화 운동의 성지(聖地)에서 있는 레닌의 동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경복궁이나 덕수궁을 돌아다니다가 오래 전 세워진 일본 천황이나 총독의 동상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독일에서 독립한 체코는 한동안 소비에트의 영향권 아래 있는 공산국가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쩌면 다른 어떤 기억들보다 지우고 싶은 아픈이고 흔적이었을 것인데 지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프

라하의 위대함이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프라하가 그 곳을 찾는 이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채우고 있는 동상들은 순간순간 프라하를 지배했던 세력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상징을 애써 지우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이 도시의 매력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일제 청산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 왔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이제 그 흔적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닌 곳들에서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프라하는 어떨까요? 매일 조우할 수밖에 없는 일상 속에 과거의 흔적을 지우지 않은 채 간직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프라하의 거리를 걷다보면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시간의 흐름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라하가 과거 속에 박제되어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체코 최대의 경제·정치·문화의 중심도시입니다. 공업도시로서의 프라하에는 100여 개의 기업이 있고 전국 공업생산의 10% 가량을 담당합니다. 유럽 철도의 대중심지이고, 유럽의 각국과 연결되는 하항(河港)이며, 또한 항공망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이기에 프라하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천년 고도' 프라하는 도시개발이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30년 전쟁

과 세계대전, 소련의 침공 등 온갖 고난 속에서도 지켜져 온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간직해 왔던 수많은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은 상징들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유럽의 여느 대도시처럼 하늘로 쭉쭉 솟은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아쉬움이 큼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들은 이미 오래 전에 잃어버린 것을 프라하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맛골이 사라지던 날, 그곳이 간직해 오던 추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이 무너지던 날, 그곳에 쌓여 있던 이야기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또 어느 기억을 지워내려 할지, 왜 이리 지워져가는 것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지우려만 하는 이들이 많은지. 머지않아 우리의 역사는 오로지 책 속에서만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다시 프라하를 찾았을 때, 그 때에도 이 도시의 마법에 빠져 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본 사진은 필자가 여행을 하며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편집자 주).